미션리

2026. 10. 23

금요일(주간)

제 873호

등록번호 광주 다 00100
(1999.1 7월 2일)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社 是

복음·선교·화합

정통 기독교 신문 미션리

발행·편집인 : 박 현 주
발 행 소 : 미션21
인 쇄 처 : (주)대한칼라
대 표 전 화 : (062) 367-9109
F A X : (062) 367-9108
e-mail : phj2930@nate.com
(우)61652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88(월산동 184-1 동삼빌딩)

미션21 입금계좌
농 협 645-02-066108
예금주 : 박 현 주
국민은행 573-01-0045-028
광주은행 146-127-005850
예금주 : (유) 미션21

구독 및 광고문의 (062) 367-9109

3 기획특집 - 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가 할 일



'고려인강제이주 90주년 국제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할 일은, 이제 국적, 노동·복지, 교육, 그리고 가족결합을 뒷받침할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추진위가 광주와 중앙아시아, 세계 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연결하는 국제 문화교류의 관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5 기획특집 - 이수정 순교 140주년 자료집 발간위, 미공개 시 발굴-④·완



"이수정이 지은 원래 한 시들은 널리 찬탄받아 온 작품들이다. 번역을 하다보니 원작이 지닌 운율과 독특한 운치를 살리지 못했다. 회심하기 전 그의 작품들은 슬픈 정조를 띠고 있었으나 복음을 받아들인 후의 작품에는 충만한 기쁨이 표현된다."



11월 1일 오후 3시 금남로 10만 연합성회

"전남광주 교회 다시 하나 되는 영적부흥운동 출발점"

'20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연합성회'가 오는 11월 1일(주일) 오후 3시 광주 금남로 1~5가 일대에서 열린다.

'특별시 승격 감사 10만 명 연합기도회'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성회는 (사)민족복음화운동 전남광주본부가 주최하며, 전남광주지역 교회와 성도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한다.

주최측은 "이번 금남로 성회는 단순한 대규모 집회가 아니라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300만 명 성회를 준비하는 전초 집회"라며 "전남광주 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 회개와 기도, 성령과 전도로 다시 하나 되는 영적 부흥운동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주최측은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에서 뜨겁게 타올랐다"며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역사는 적국으로 확산됐고, 1973년 빌리 그래함 서울전도대회와 1974년 엑스플로74를 거쳐 1977년 '77 민족복음화대성회'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최측은 이어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37개 교단이 연합해 하루 180만 명, 연인원 750만 명이 참여하는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큰 역사를 이뤘다"고 말하고 "이 성령과 복음전도의 불길을 계승하기 위해 1978년 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창립됐으며, 이제 202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민족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7년 대성회는 한기총, 한교총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단위와 272개 시·군 지역 교회의 연합을 통해 회개운동.성령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7 목회트렌드 세미나'가 지난 15일 광주동명교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의 변화하는 목회 환경을 진단하고 작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시간이 됐다.

'작은 교회에 새로운 가능성' 2027 목회트렌드 세미나

한 사람 돌봄과 제자양육, 데이터로 읽는 한국교회 변화
광주동명교회에서, 김선일 교수 · 지용근 소장 주제 강연

한국교회의 변화하는 목회 환경을 진단하고 작은 교회의 건강한 성장 방향을 모색하는 '2027 목회트렌드 세미나'가 지난 15일 광주동명교회 교육관에서 열렸다.

교회자립개발원 광주전남권역위원회(조동원 목사)가 주최하고 요셉의창고 사회적협동조합(이사장 이박행)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목회자와 장로 등 교회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선일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와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강소교회의 실천 전략과 2027년 한국교회 주요 트렌드를 소개했다.김선일 교수는 '강소교회 부흥 로드맵'을 주제로 작은 교회가 지닌 관계와 돌봄의 강점을 살리는 목회 방향을 제시했다. 강소교회를 복음에 기초한 정체성을 갖고 자기 규모에 맞는 사명을 지속하며, 성도를 제자로 세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설명했다.김 교수는 강소교회의 과제를 방향성, 핵심동력, 지속성의 세 영역으로 나뉘다. 교회의 비전 공유와 공동체 형성, 주일 중심 목회와 예배·성교를 기초로 삼고, 한 사람을 향한 돌봄을 평신도 동역과 제자양육, 소그룹 사역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용근 대표는 '데이터로 읽는 2027년 한국교회와 부흥의 조건'을 주제로 한국교회 주요 지표와 성장·쇠퇴 교회의 차이를 분석했다. 강의에 제시된 2026년 담임목사 500명 조사에서 주일 현장예배 참석 인원은 코로나 이전 대비 평균 95%였으며, 이전보다 참석자가 증가한 교회는 15%로 나타났다.

2027년 주요 목회트렌드 가운데 '느슨한 공동체', '아날로그 영성', '전도 리포메이션', '대은퇴시대'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성도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하면서 부담 없는 만남을 깊은 신앙의 관계로 연결하고, 대면 예배와 말씀 묵상, 기도와 이웃 섬김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교회의 변화를 보여주는 조사 자료와 소형교회의 현장 사례를 함께 다루며, 지역 교회가 2027년 목회 계획에 반영할 과제를 제시했다. 두 강의는 예배와 말씀의 깊이를 회복하고 한 사람을 돌보며, 성도들 일상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동역자로 세우는 데 공통된 무게를 뒀다.



예장 전남노회 제138회 제1차 정기노회가 지난 22일 오전 9시 월광교회에서 개최됐다.

예장통합 전남노회 제138회 1차 정기회 성료

노회장 송인동 장로 "노회 발전위해 최선"
부노회장 김양수 목사 · 장기영 장로 선출

각 교단 가을 정기노회가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예장 통합 전남노회 제138회 1차 정기회가 10월 22일(목) 오전 9시 월광교회(김요한 목사 시무) 예배당에서 열렸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신 30:19~20, 엡 4:1~6)를 주제로 열린 이날 정기회 개회예배는 김요한 목사의 인도로 노회장 주문창 목사가 '예수님의 목양'(요 4:9, 2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개회예배에 이어 노회장 승계, 취임, 부노회장 선거, 임원 선출 및 각종 회무를 처리했다.

전남노회는 제138회기 노회장에 송인동 장로(광주양림교회), 목사 부노회장에 김양수 목사(신원벧엘교회), 장로 부노회장에 장기영 장로(광주다일교회)를 선출했다.

노회장에 취임한 송인동 장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며 "노회 발전과 도시 및 농어촌에 산재해 있는 회원교회와 회원들의 복지개선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사 부노회장에 선출된 김양수 목사는 "노회장님을 도와 노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며 "농어촌 교회 등 노회 내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잘 살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통합 광주동노회는 27일(화)오전 9시 광주소망교회, 광주노회는 11월 3일(화) 오전 9시 송정제일교회에서 각각 가을정기회를 개최한다.

<전남노회 제138회기 임원>

직위	임원명(시무교회)
노 회 장	송인동 장로(광주양림교회)
부노회장	김양수 목사(신원벧엘교회)
부노회장	장기영 장로(광주다일교회)
서 기	고재환 목사(한소망교회)
부 서 기	오주호 목사(금현선교교회)
회록서기	조규성 목사(서광주교회)
부회록서기	서성기 목사(주사랑교회)
회 계	황대연 장로(상무무등교회)
부 회 계	문영태 장로(옥과교회)



